

박선호 차관, 임금직접지불제로 체불 없는 안심일터 당부 **25일 일자리 개선 발주기관 간담회서 국토부 산하기관 추진계획 점검논의**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5일(수) 정동에서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.

* (참석) LH, 도로공사, 철도시설공단, 철도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

○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(17.12)」, 「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(19.11)」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, 고령근로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으로,

○ 이번 간담회는 건설 일자리 주요 대책을 일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금직접지급제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응방안, 고령근로자 시범사업 계획 등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.

○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,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지급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성공사례를 공공부문에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진단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시스템 개선협의를 추진하고, 임금직접지급제 모니터링 강화 및 선급금 관리강화 방안 등 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였다.

○ 아울러, 고령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작업배치, 친화적 작업환경조성, 안전·편의시설 지원 등의 고령근로자 시범사업 계획*도 논의했다.

* LH(평택고덕 아파트, 산청옥산 아파트), 도로공사(인주염치2, 청주흥덕 하이패스C), 철도시설공단(동두천-연천역사, 서해선 105역사, 고막원-목포7), 인천공항공사(T1 남측 연결도로, 제2여객터미널 확장(동측)), 한국공항공사(청주공항 제2주차장 포장)

** 안전시설물 설치강화, 고령근로자 친화적 현장 환경개선 체크리스트 마련, 휴게시설 확충, 가설·굴착 등 위험공종 작업 지양 등

□ 박선호 차관은 “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, 코로나19로 건설업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강보호를 위해 모범사례들이 타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

○ 또한,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정부와 함께 방역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.

2020. 3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